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금융은 **튼튼**하게 소비자는 **행복**하게

보도	2025.2.27.(목) 14:00	배포	2025.2.27.(목)		
담당부서	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위충기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이수인	(02-3145-7125)
	IT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유희준	(02-3145-7420)
		담당자	팀 장	안태승	(02-3145-7415)
	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변재은	(02-3145-8780)
		담당자	팀 장	김석원	(02-3145-8782)
	전자금융검사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심은섭	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손인호	(02-3145-7154)
	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감독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이주영	(02-3145-8162)
	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전홍균	(02-3145-7100)
		담당자	팀 장	고병완	(02-3145-7102)

2025년 디지털·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

I 업무설명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2025.2.27.(목)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5년도 디지털·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-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·IT부문의 첫번째 업무설명회로,
 - 세션 I에서는 연세대 권태경 교수의 주제발표*에 이어, 2025년도 디지털·IT부문 감독·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,
 - * 「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」
 - 세션 II에서는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장(場)을 마련하였음

Ⅱ 디지털·IT 부문 부원장보 말씀 주요 내용

□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,

- 우리 금융 산업이 생성형 AI, 클라우드 등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하고,
 - 그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정경쟁 증진,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음
 - 또한, 금융IT 규제 패러다임이 규칙(rule)에서 원칙(principle) 중심으로 전환*됨에 따라, 금융회사의 “자율성”에 기반한 자율 체계가 정립·안착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음
- * '25.2월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개정으로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축소하는 등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
- 특히, 빅테크·핀테크社에 대해서는,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보안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
 - 단순 점검·지도가 아닌 “컨설팅 중심의 검사”를 통해 회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자체 시정·개선토록 하는 등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하였음
 - 다만, 금융보안 체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제고하되,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, IT 장애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·조치하겠다고 밝혔음

□ 이어서, 이종오 부원장보는,

- ①금융분야 AI 활용 촉진, ②IT 운영 거버넌스 강화, ③전자금융업 건전성 제고, ④가상자산 자율체계 고도화 등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였음

- 먼저, 금융분야 인공지능(AI)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AI 위험관리를 위한 규율체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
- 또한, 금융권의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既마련한 「IT 감사 가이드라인」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
 - 금융회사 스스로 IT리스크를 진단·개선하고 금감원은 자체 진단 결과를 피드백하는 IT자율시정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
- 아울러,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닿아 있는 전자금융업 분야에 대해서는, 건전성 감독 강화,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하였음
- 끝으로,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가상자산 업계의 IT안정성 확보 등 자율규제 마련을 지원하는 등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

< 2025년도 디지털·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요 >

- **(일 시)** '25. 2. 27.(목) 14:00~16:10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- **(참석자)**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가상자산사업자,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
- **(프로그램)**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30(30분)	스탠딩 티타임	-
<Session 1> 디지털·IT 부문별 감독·검사 방향		
14:30 ~ 14:35(5분)	인사말씀	디지털·IT부문 부원장보
14:35 ~ 14:50(15분)	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	연세대 권태경 교수
14:50 ~ 15:20(30분)	디지털·IT 감독·검사 방향(10분)	디지털금융총괄국 국장
	전자금융업 감독·검사 방향(10분)	전자금융감독국 국장
	가상자산 감독방향(10분)	가상자산감독국 국장
15:20 ~ 15:30(10분)	Q&A	참석자
<Session 2> 라운드 테이블		※ 분야별 장소 이동
15:40 ~ 16:10(30분)	업권별 라운드 테이블	각 부서장

Ⅲ 향후 계획

- 오늘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·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
 -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실시*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임
- * [2월]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, 금융회사 CIO 간담회 (既 실시)
[3월]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,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담회
[4월] 권역별 CISO 간담회, CDO 간담회 등

□ 금융권 AI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

- AI 개발목적의 양질의 학습데이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명정보 및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 등을 지원
- 데이터전문기관별 데이터 결합 소요기간 점감 등을 통해 신속한 데이터 결합 및 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
- 금융데이터 부족, 비용 등 문제로 AI 개발·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금융회사를 위한 「금융권 공동 AI 플랫폼」 구축을 지원

□ 안정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한 AI 규율체계 마련

- 금융회사에서 AI 개발·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「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(가칭)」 마련 및 안착 등을 지원
 - 금융회사가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·활용하고 AI의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 마련 등

□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·강화

-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「IT감사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고 원칙중심 규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규정 해설서 발간
-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금액 상향, 전자금융업자의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등 강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안착 지원
-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·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, 우리원 평가 후 고위험社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'IT자율시정제도*' 확립

* '24년 저축은행에 도입·적용하였고 '25년 중소형 증권·보험사에 확대 적용 예정

□ 금융회사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

- 은행권 재해복구(DR)센터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^[1단계]핵심업무·비상계획 조정 및 ^[2단계]전산센터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
-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 IT회복 탄력성 및 전환서비스 실효성 검증
- 블라인드 방식의 모의해킹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, 시나리오 기반의 사이버 위협 예방 실태점검 및 대응체계 검토

□ 실효성 있는 제3자 IT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

-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제3자 위탁업무의 중요도에 비례한 차등화된 보안통제 및 보고체계 마련
- 주요 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및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자율개선 유도

□ 전자금융업 건전성 감독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

- PG사 등 전금업자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 대외공시하고,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대
- 전자금융업의 이용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관리 관련 제도 도입 준비, 선불충전금 보호실태 점검 등 추진

□ 가상자산 규율체계 안착 및 고도화 추진

-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·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등을 지원
 - 기술·산업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외 규제체계 등을 연구하여 국내 규제체계 마련시 반영
-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추가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